

환경·에너지공학 학제전공

학과사무실 : 042-869-3602

개 요

환경·에너지공학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여 인류의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산업사회의 고도성장과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오염형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가 국제질서의 큰 축이 되고 있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을 통합한 지속적인 성장은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모든 나라의 공통된 목표가 되었다. 더욱이 선진국의 환경기술에 대한 무기화가 점차 가시화되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려 하는 그린 라운드에 대한 효과적 대처는 우리나라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대내적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팽배해 있다. 환경보존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산업은 유망한 산업분야로 변화되었으며 환경보존을 고려한 산업기술의 개발이 각 기업의 중요한 전략기술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는 추세이며 국제통상질서의 주요 쟁점으로써 국가간의 첨예화된 이익추구의 장이 되고 있다.

본 환경·에너지공학 학제전공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열쇠가 환경기술개발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위해 학제전공을 통한 체계적인 기본지식과 분야별 전공지식 및 응용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학제전공은 단기적으로는 환경관련기술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한 실무위주의 고급기술인력의 양성과 저공해 산업의 유도를 위한 기술의 교육 및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한 환경기술의 확보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기존 환경관련 기술자중 중간관리자층의 고급기술 재교육과 타 분야 인력중 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통한 환경분야 전체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환경·에너지공학 학제전공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의 미래상을 추구한다.

□ 환경 첨단기술의 국제화

환경문제는 이제 범 지구적인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환경기술의 수출입은 새로이 각광받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첨단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가 요구된다.

□ 환경 행정·정책의 과학화

최적환경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행정과 정책은 과학적이며 계량적인 근거하에서 채택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계량적인 도구의 활용 및 기법의 확립이 요구된다.

□ 환경현장기술의 공학화

산업체 현장에서의 적정 환경관리는 직접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한 대처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들에게 환경공학의 원리를 교육하여 응용하도록 한다.